

『토지』의 상호작용 콘텐츠화에 관한 시론 - ‘간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최배은*

1. 서론
2. 『토지』의 ‘간도 이야기’ 구조
 - 2-1. 평사리 주민의 이주서사
 - 2-2. 독립운동가들의 방랑서사
3. 조선족 시점으로 해석한 ‘간도 이야기’
 - 3-1. 조선족 형성서사
 - 3-2. 선조들의 항일 희생서사
4. 조선족 역사 콘텐츠로서 『토지』의 의의

국문요약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문학작품이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특히 어떠한 콘텐츠든지 감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 콘텐츠는 실상 감상자의 행위를 제약하기에 효과적으로 제작되지 못한다면 감상자들과 유리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의 상호작용 콘텐츠는 주로 테마파크나 전시관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데 느낌과 체험보다 앎을 우선시하여 감상자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감상자의 실존적 상황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 박경리의 『토지』를 예로 들어 논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말하기 양식인 『토지』는 그동안 TV 드라마, 만화 등의 보여주기 양식과 문학관, 문학공원 등의 상호작용 양식으로 각색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편 역사소설 『토지』는 감상자의 세대,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가령, 간도에 『토지』 문학관이나 문학공원을 만든다면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이나 원주의 ‘『토지』 문학공원’과 기획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상황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토지』의 2부부터 전개되는 간도에서의 이야기는 평사리 주민들이 간도로 이주해서 정착, 귀향하는 서사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와 투쟁하며 방랑하는 서사로 구성된다. 그것을 조선족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조선족 형성서사이자, 선조들의 항일 희생서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상자들의 실존적 상황에 따라 서사의 초점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학작품의 상호작용 콘텐츠를 기획할 때 그에 맞는 작품의 재해석은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의 열쇠가 될 것이다.

(주제어: 『토지』, 상호작용 콘텐츠, 각색, 감상자의 실존, 간도, 이주서사, 방랑서사, 조선족 형성서사, 항일 희생서사)

1. 서론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문학작품이 영화, 연극, 뮤지컬, 게임,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오락용 콘텐츠들이 새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언어예술인 문학을 좀 더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향유하고 싶은 욕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실감, 현장감, 생동감으로 소

비자를 매혹시키려는 경쟁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로 감상자를 이야기 세계에 위치시키며 나아가 이야기의 행위자로 만들고 있다. 21세기는 이른 바, ‘상호작용 콘텐츠’¹⁾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어떠한 콘텐츠든지 감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감상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상호작용 콘텐츠의 제작이 기술이나 양식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상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콘텐츠는 실상 감상자의 행위를 제약하기에 효과적으로 제작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양식의 콘텐츠보다 감상자들과 유리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테마파크, 기념관, 전시회 등이 감상자들을 참여자보다는 산책자나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현상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콘텐츠들은 지식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며 느낌과 체험보다 앎을 우선시한다. 한마디로 ‘어떻게’에 대한 궁리보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양적 충족감을 주려고 한다. 그 ‘무엇’도 감상자(수요자)의 입장에서 모색된 것이라기보다 공급자의 의도와 편의를 앞세운 것이어서 다양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그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콘텐츠 비평이나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산업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특정 매체나 갈래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유사한 문제를 지닌 콘텐츠들이 반복 재생산되며 모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문화산업이 발달하려면 소비자

1) 여기에서 사용하는 각색과 관련된 용어와 이론은 린다 허천의 도움을 받았다. ‘상호작용 콘텐츠’는 린다 허천이 말한 상호작용양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들의 문화수준 및 안목을 높여야 하는데, 훌륭한 콘텐츠는 단 한 번의 체험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토지』의 콘텐츠화에 대한 연구도 그 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시론으로서 논증보다 모색과 제안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문학작품을 각색하여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고 『토지』를 예로 들어 그 방법과 의의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방법은 린다 허천의 각색 이론을 참고한 것이다.

각색의 사전적 의미는 문학작품을 공연물의 대본으로 바꾸는 것²⁾이지만 매체의 변화로 각색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린다 허천은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생산물, 창작과정, 수용과정의 관점에서 각색을 ‘잘 알려진 다른 작품 또는 작품들의 공인된 전위, ‘전유/구원이라는 창조적이고 해석적인 행위’, ‘각색된 텍스트에 대한 확장된 상호텍스트적 행위’로 정의 내린다. 그리고 각색의 형식을 말하기(인쇄물), 보여주기(공연물), 스토리와 상호작용하기(게임, 테마파크 등 감상자의 물리적 참여 콘텐츠)로 나누어 이론화한다.³⁾ 여기선 수용과정을 고려한 창작과정의 해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다시 말해 린다 허천이 말한 폭넓은 의사소통 맥락⁴⁾에서 연구한다. 연구 범위는 상호작용 콘텐츠 중에서도 테마

2) 각색(脚色) ① 역사적 사실이나 소설 따위를 고쳐서 연극이나 영화의 각본으로 만드는 일. ② 꾸며낸 내용을 보태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9.

3) 린다 허천, 『각색 이론의 모든 것』, 손종흠·유춘동·김대범·이진형 옮김, 엘피, 2017, 50-56쪽, 90-98쪽 참고.

4) “하지만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물질적 전달 수단(매체)이나 구성 규칙(장르)만이 아니다. 물질적 전달 수단과 구성 규칙은 서사적 기대를 허용하고 그를 위한 길을 터놓으며, 어떤 맥락에 있는 누군가에게 서사적 의미를 준다. 그리고 서사적 기대는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폭넓은 의사소통 맥락이 있는데 모든 각색 이론은 이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린다 허천, 『각색

파크나 문학관으로 한정하고, 『토지』의 2부부터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간도 지역이다. 현재 그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서 조선족들이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항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운동주 생가 및 운동주 기념 전람관, 강경애 문학비, 청산리 항일 기념 대첩비 등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토지』는 일제 강점기 간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삶과 항일운동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로 제작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⁵⁾

한국에서 문학작품의 상호작용 콘텐츠 제작에 관한 연구는 최혜실의 〈소나기마을〉과 〈만해마을〉의 설계 방안 연구⁶⁾ 이외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 최혜실은 문학작품의 구조와 상동적인 구조로 테마파크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소나기마을〉은 통과제의의 설화 구조로, 〈만해마을〉은 조선시대 사찰의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문학작품의 구조와 동일하게 테마파크가 설계된다면 감상자가 기획자 의도에 따라 충실히 테마파크를 둘러보았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감상자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최혜실의 연구는 문학작품을 물리적 참여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체험의 목표가 여전히 문학작품에 대한 앎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감상자 입장에서 문학작품의 구조나 주제를 몰라도 문학작품을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토지』와 같은 장편 역사소설은 『소나기』나 『만해의 시』보다 더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감상자들에게

이론의 모든 것』, 손종흠·유춘동·김대범·이진형 역, 엘피, 2017, 86쪽.

5) 연변과학기술대 교수 성병오는 연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토지』가 콘텐츠로 개발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히 『토지』 2부의 배경은 용정이다. 그 배경을 되살려보려는 노력이 과연 헛된 것일까. 외국 같으면 그만큼 자료라도 충분히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성병오, 『중국 속의 이방인 - 연변을 들여다보다』, 도어즈, 2015, 93쪽.

6) 최혜실,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8.

체험될 수 있다. 그런데 문학작품의 이해를 전제로 콘텐츠를 기획하면 결국 유사한 콘텐츠들이 반복하여 제작될 뿐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감상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린다 허천의 각색 이론에 따르면, 소설 『토지』는 말하기 양식이고, 드라마 〈토지〉는 보여주기 양식이며, 〈박경리 문학관〉은 상호작용 양식이다. 이것은 감상자의 참여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 감상자의 오감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의 변화는 감상자의 행위를 제약한다. 책을 읽을 때 감상자는 시간과 공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읽는 순서도 변경시킬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며 순서를 변경하여 감상할 수 없다. 그래도 중단과 교체가 용이하고 동시에 다른 일을 하며 감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문학관은 감상자의 행위에 가장 제약이 심하다. 문학관 내부로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그곳에 있는 콘텐츠만을 접하게 된다. 교체는 불가능하고 중단도 쉽지 않다. 또 계속 걷고 보고 들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가 감상자를 만족시키면 이 모든 과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상호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상자들은 고역을 인내하며 수동적으로 동선을 따라다닐 뿐이다.

상호작용 콘텐츠의 대표적인 장르는 게임인데, 다른 장르도 감상자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것을 수행하며 콘텐츠를 즐기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즉 상호작용 콘텐츠는 감상자의 행위를 통해 몰입도를 높이는 전략이므로 참여 환경과 과제, 구조 등이 그에 부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말하기나 보여주기 양식에 비해 감상자 초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체험시킬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탐구와 기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색의 방식은 사건의 재현이다. 평사리에 조성된 최참판 댁 가옥과 월선의 주막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재현만으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건이든 소설적 사건이든 재현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만큼 한계가 분명한 방식이다. 특히 문학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은 나름의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는 재현은 오히려 몰입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한편 재현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그 수많은 사건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 그것은 곧 누구의 시점에 따라 재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베트남 전쟁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베트남과 미국에는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기념관이 있다.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전쟁 기념 박물관⁷⁾은 미군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기록, 사진, 미군이 당시 사용했던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 기념관⁸⁾은 건물이 아닌 공원에 전사자 명단을 적은 대리석 벽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 벽에서 물이 흐르게 하여 감상자들이 자기 얼굴을 비춰 보게 한다. 즉 베트남은 승전국이지만 승리를 기념하기보다 미군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미국은 전사자 추모와 반성의 공간이 되도록 기획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엇’에 따라 ‘어떻게’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상호작용 콘텐츠로 각색할 때 체험의 내용인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선 그 방법으로 감상자의 실존적 상황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제안한다. 테마파크와 같은 콘텐츠에 감상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으려면 그 공간이 감상자에게 ‘참된

7) 한때 이 박물관은 ‘중국 및 미국 전쟁범죄 박물관’이었으나 이들 국가들로부터 온 관광객의 반감을 사서 개칭했다. 그러나 아직도 박물관에서 나눠주는 팸플릿에는 미국 제국주의자라는 영어 문구가 있다.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87XX37600131>.

8)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을유문화사, 2015)의 “제6장 베트남 기념관: 역사와 땅과 사람을 이용한 디자인의 백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감⁹⁾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단지 훌륭한 문학작품의 재현에 머물러선 안 되고, 그 공간이 감상자들의 실존과 결부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 역사를 베트남 국민과 미국 국민의 실존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해석한 것처럼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의 주요 공간 중 하나인 ‘간도’를 예로 들어 그 방식을 구체화해보겠다. 간도는 『토지』의 2부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이야기 공간이자, 현재 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서 역사적 공간이다. 『토지』에서 간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족에게 남다른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여기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간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도 이야기’라 칭하고, 그 이야기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토지』를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가능한 방법이다. 문학작품으로서 『토지』를 해석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토지』에서 ‘간도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족 시점으로 해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평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전체 서사적 관점에서 해석한 간도 이야기이고, 후자는 21세기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 방식은 조선족 시점으로 해석했을 때 서사의 의미와 부각되는 인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의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9) ‘참된 장소감’이란 에드워드 렐프의 용어로, 무엇보다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집이나 고향,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의식적으론 이해와 성찰의 태도로 특정 장소의 모든 측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를 말한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17, 147-153쪽 참고.

2. 『토지』의 ‘간도 이야기’ 구조

『토지』에서 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사건을 체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제	중심사건
제2부	제1편 1장-17장	용정촌의 대화재 후 재건
	제2편 1장-17장	이용의 통포슬 이주/ 김두수의 계약/ 서희와 길상의 결혼
	제4편 1장-12장	해관, 봉순의 방문/ 강우규를 따라간 주갑/ 두수의 계약에 맞서는 길상/ 장인결과 이동진의 외로움
	제5편 1장-15장	김환의 방문/ 월선의 죽음/ 금녀에게 총상을 입은 두수/ 서희와 평사리 주민의 귀향/ 길상의 독립운동 투신
제3부	제2편 1장-4장	한복의 방문/ 금녀의 죽음/ 두수와 한복의 만남
	제5편 1장-6장	해관과 주갑의 방문/ 상현의 세리판 심 방문/ 신태성의 밀고
제4부	제5편 1장-7장	홍이의 새 사업/ 독립군 두메의 애환/ 하얼빈에 온 인실/ 오가타의 고뇌
제5부	제1편 1장	홍이의 외로움/ 홍이와 영광의 만남/ 관수의 죽음
	제2편 1장-2장	보연의 밀수/ 오가타와 인실의 만남
	제4편 4장	오가타와 쇼지의 여행
	제5편 2장	두메, 영광이 하얼빈의 홍이 방문/ 영광과 상현의 만남

‘간도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용정의 서희 일행, 독립운동가, 귀화한 조선인, 그들의 자손, 밀정 등이다. 그 구조는 크게 서희를 중심으로 한 평사리 주민의 이주서사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방랑서사로 이루어진다.

2-1. 평사리 주민의 이주서사

평사리 주민 중 서희와 함께 간도로 이주한 이들은 용이 가족, 영팔이 가족, 상현, 길상, 김훈장이다. 이들은 조준구 일가를 습격하고, 항일의

병활동을 하다가 간도까지 피신하여온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의병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상현과 길상을 빼고 서회를 위해 간도까지 이주할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간도 이야기’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간도로 이주한 평사리 주민들이 간도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는 이야기이다. 그 양상은 크게 정착과 귀향, 죽음, 방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인물의 신분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

2-1-1. 정착과 귀향

① 서회의 치부

서회는 조준구 일가에게 땅과 집을 빼앗기고 간도로 이주했지만 다른 주민과 달리,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다. 자본과 지혜, ‘공노인과 길상’이라는 조력자의 존재로 서회는 치부하여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고 귀향한다. 서회에게 간도는 기회의 땅이자, 성취의 공간이다. 그것은 고향인 평사리에서 간도로 이주하며 서회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평사리에서는 몰락한 양반집 고아였지만 간도에서는 자본가로 거듭나 성공한 최부자가 된 것이다.

2부가 간도로 이주한 지 3년 후인 1911년 용정의 대화재로 시작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파괴가 건설의 어머니인 것처럼 서회는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훌륭한 집을 건축하며 더 많은 땅을 사들인다. 경제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상현과의 감정을 정리하고,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길상과 결혼한다. 그리하여 아들들을 낳아 가문을 계승할 자손의 번성에도 성공한다.

서회의 치부 방식은 주로 사재기와 땅 투기인데 그 대상은 주로 일본, 중국 당국이거나 중국인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협조로 용정에서 독점

적으로 부를 축적하여 치부 행위가 민족 자본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서회는 귀향하여 지주의 신분으로 살 뿐 용정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회가 일반적인 자본가와 다를 뿐 아니라 불완전한 자본가임을 보여준다. 서회는 자본의 증식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땅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회는 평사리 땅을 되찾고서 용정의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다. 용정에 남겨진 서회의 부동산은 공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 독립운동가들에게 활용되므로 공유화된다.

② 용이, 영팔의 노동

용이와 영팔은 평사리 농민으로 의병 활동에 가담했다가 일경의 눈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간도로 이주한다. 이향과 귀향 모두 서회와 함께 하지만 이주하여 생활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그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중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 원인은 서회처럼 자본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신분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용이와 영팔은 서회의 도움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었으나 송충이는 술을 먹어야 한다며 농민의 정체성을 고집한다. 그들은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이 되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겨울엔 벌목꾼이 된다. 그들은 귀향해서도 농사를 지으며 평생 농민으로 살아간다. 지주나 자본가처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자라서 평생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고되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땅을 살리는 자들이고 가치의 원천을 만들어 내는 1차 생산자이다.

특히 용이는 대화재 전까지 월선의 주막 일을 거들며 지내다가 화재 이후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다. 농사는 농토뿐만 아니라 훼손되었던 용이의 자존감도 살려주어 용이는 농사 이후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

2-1-2. 죽음

평사리 주민의 이주는 강탈당한 자들의 도피에 해당하므로 회복과 귀향은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하지만 김훈장과 월선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간도에 와서 치부도 노동도 할 수 없었던 김훈장은 식객 노릇만 하다가 해관과 삼원보로 이주한 후 거기에서 죽는다. 뚜렷한 족적은 남기지 못했으나 김훈장은 간도에서 조선의 양반의식과 선비사상을 구현하며 생활한 인물이다. 그리고 양자(養子) 환경이 그의 유해를 평사리로 이장하여 죽어서라도 귀향한다.

월선은 조선에서처럼 용정에서도 주막집을 하는데, 신분엔 변화가 생긴다. 고향에서는 무당의 딸이자, 용이의 불륜녀였지만 용정에서는 용이의 첫째 부인이자,¹⁰⁾ 홍이 어머니로 거듭난 것이다. 월선의 신분은 간도로 이주한 뒤 훨씬 명예로워졌다. 월선의 무덤은 김훈장과 달리 용정에 계속 자리하며 홍이에게 고향의 역할을 한다. 홍이의 생모는 임이네이지만 모정을 다해 키운 이는 월선이었기에 홍이는 월선과의 추억이 있는 간도를 제 고향처럼 여긴다. 간도로 이주한 주민들이 대부분 조선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것과 반대로, 홍이는 간도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거기엔 부모 세대와 달리, 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영향이 크지만 월선의 자취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월선의 간도에서의 죽음은 간도를 잊힐 수 없는 조선인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조선과 간도에서의 삶을 이어준다.

10) 용이의 본처인 강청덕이 죽은 상황에서 임이네가 월선이를 “형님”으로 불러 월선이 첫째 부인처럼 인식된다.

2-1-3. 방황

상현의 간도 이주는 서희 때문에 촉발된 충동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아버지 이동진을 만나러 온다는 구실도 있었으나 서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단하기 어려웠을 걸음이다. 하지만 이미 기혼자인 상현은 서희에게 제대로 고백도 못 하고 실연의 아픔을 겪는다.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상현의 삶은 이때부터 비롯되어 평생 이어진다. 서희를 피해 조선으로 온 상현은 기화와 인연을 맺고, 다시 기화를 피해 간도로 온다. 그 기화와 상현 사이에 태어난 딸 양현을 백정의 자손인 영광이 사랑한다.

트럼펫 연주자인 영광은 공연하기 위해 왔던 간도에 양현을 피해 다시 온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잊기 위한 도피의 공간으로 간도를 택한 것이다. 흥이의 알선으로 취업한 후 영광은 다음과 같이 방랑의 뜻을 밝힌다.

“저는 농사짓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또 한곳에 매여 살고 싶지도 않구요. 그냥 아무 곳이건 끝없이 가고 싶습니다. 머문다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도?” “형님한테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당분간만 있어볼 작정인데.”¹¹⁾

상현과 영광에게 간도는 도피의 공간이자 방황의 공간이다. 물론 그 들에겐 조선이나 일본도 잠깐 머무는 공간일 뿐이다.

11) 박경리, 『토지』 5부 5권, 마로니에북스, 2012, 59-60쪽.

2-2. 독립운동가들의 방랑서사

『토지』는 최참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평사리 주민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독립운동 이야기이다. 특히 2부부터 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그러한 경향이 노골화된다. 즉 2부부터 5부까지 간도로 공간이 바뀌면 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독립운동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기억할 때, ‘여인의 한, 복수, 낭만적 사랑’을 먼저 떠올린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토지』 전편을 읽은 독자가 드물어 1부의 중심내용만 기억하거나 더욱이 독서보다 드라마로 시청한 감상자들이 많아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된 원인은 독립운동 이야기의 서술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대개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그 구체적인 활동을 사건화하지만 『토지』에선 그것은 생략되거나 요약된다. 주로 독립운동가들의 대화와 내면을 서술하여 그들의 고뇌와 정서를 드러낸다. 이것은 감상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독립운동의 구체적 장면보다 독립운동가들의 소소한 일상이나 내면을 서술함으로써 그들을 특별한 영웅이 아닌 나라 잃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보게 하고, 나아가 그 시절 대다수 민중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보게 한다. 그러다보니 『토지』에서 독립운동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과 잘 구분되지 않아서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에 비해 밀정과의 대결은 매우 구체적이고 비중 있게 서술되어 그 순간 서사의 긴장과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존재가 빛을 발한다. 이에 대해 인물의 세대와 기능에 따라 살펴보겠다.

2-2-1. 1세대 독립운동가의 고독

『토지』에 등장하는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1세대와 그 뒤를 잇는 새 세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동진, 권필웅, 장인걸 등으로 대표되는 1세대 독립운동가들은 일찍이 고국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자금을 확보하며 일제와 대결한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거나 잃고 밀정의 눈을 피해 방랑한다. 그렇게 항쟁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고독하다. 최치수의 친구인 이동진은 1세대 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주로 가치관의 혼란과 고독한 내면이 서술된다. 길상과 서희의 혼인 문제를 접했을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서희의 판단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론 양반의 순결성이 훼손되는 데 따른 혐오와 공포를 느꼈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한 길상을 대면했을 때 동등한 시선으로 대하기 어려워한다. 즉 이동진의 고독은 가족을 떠나 홀로 지내는 조건뿐 아니라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독립운동 초기에 확신했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동진은 요즘 자주 하동에 있는 가족을 염두에 떠올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중략)… ‘내가 늙은 탓일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탓일까. 심씨댁 환한 불빛, 딸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왜 눈시울은 뜨거워졌을까. 늙은 탓이 아니다. 늙도 젊도 않기 때문일 게야. 늙은 골수파들은 한 치 의심 없는 충성심으로 끝장냈고 끝장내려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허허허어.’¹²⁾ ‘왜 나는 이리 늙었고 권필웅 씨는 그리 젊었는가. 나는 불 꺼진 잣더미 같고 그는 활활 타는 관솔불 같다. 손살같이 앞날을 내다보는데 나는 무거운 이조 잔재에 놀리어 이리 늙어가고 있다.’¹³⁾

12) 박경리, 『토지』 2부 3권, 마로니에북스, 2012, 330쪽.

13) 박경리, 『토지』 2부 3권, 마로니에북스, 2012, 338쪽.

위의 인용처럼 이동진은 요즘 고향을 자주 생각하는 자신이 늙지도 젊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장인결과와의 대화나 이동진 스스로 권필웅처럼 젊지 못함을 한탄하는 사색에 이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분제도에 대한 굴레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장인결은 러일전쟁 때 일군의 동태를 살피다가 일군에 의해 처지를 잃는다. 그 일이 한이 되어 심금녀를 사랑하면서도 인연을 맺지 못하고 고독을 견딘다.

권필웅은 가장 냉철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서, 젊은 독립운동가들의 존경을 받고 기둥 역할을 한다. 그의 내면은 잘 서술되지 않는다. 강우규 열사를 모델로 한 강 의원도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평범한 노동자 주장을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 정도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심운회는 러시아에 귀화한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그 외 청국 귀화 조선인으로 오득술도 등장한다. 귀화 조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깊은 유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심리에 대해 이동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들 심리 속에 깊이 뿌리박힌 외로움... 귀화하여 보장되고 약속받은 터전이건만 이민족 속의 우리, 이민족 속의 나, 그 의식이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흘러온 수만 이곳 조선인들의 사무친 슬픔이다.¹⁴⁾

위와 같이 이동진은 귀화인들의 심리에서 뿌리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롯한 식민지 조선인의 것임을 깨닫는다.

1세대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간도에서 죽는다. 그야말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한 삶이다.

14) 박경리, 『토지』 2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73쪽.

2-2-2. 새 세대 독립운동가의 방황

1세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서 그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무렵, 세 세대 독립운동가들이 형성된다. 그들은 송장환, 김길상, 강두메, 이흥, 박정호, 유인실 등이다. 송장환은 가장 먼저 결심하고 투신한 이다. 그는 일찍이 간도로 이주해 학교를 비롯한 사회사업으로 명망이 높았던 송병문의 둘째 아들로, 용정에서 조선인의 민족의식 교육을 위해 힘쓰다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그의 제자인 박정호, 이흥, 강두메를 독립운동가로 성장시켜 함께 일하고 돌보아준다.

김길상도 송장환의 주선으로 독립운동 조직에 들어선다. 하지만 길상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한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서희와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아내가 남편과 뜻을 같이하며 그의 동지나 조력자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서희에게는 나라의 독립보다 가문의 땅과 집을 되찾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길상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서희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귀향하는 때 이루어진다.

유인실은 계명회 사건으로 김길상과 투옥되었다가 풀려나 간도로 온다. 인실이 간도로 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인 사정이 앞선다. 오가타와의 사랑으로 그의 아기를 낳고 조찬하에게 맡긴 뒤 절망적인 심정으로 찾은 곳이 간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근본적으로 인실의 민족주의적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일본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¹⁵⁾

10년 만에 해후한 오가타에게 전한 인실의 말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선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새 세대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와 모순되는 개인의 욕망이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한다. 뿐만 아니라 1세대 독립운동가들이 죽고 동지들이 붙잡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뇌하고 방황한다. 5권의 이홍과 강두메의 연쟁은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

“인간은 기계 부속품같이 그렇게 해체되는 게 아니야. 이 만주 벌판 눈 구덩 속에서 수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심정적으로 죽어갔어. 고귀한 마음으로 죽어갔단 말이야” “개 꼬리 삼 년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더니 홍이 네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언제까지 그 놈의 나긋나긋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겐가?” 이들의 연쟁이 오늘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처럼 극과 극도 아닌 것 같았다. 두메도 냉혹의 극치는 아니었으며 홍이도 감상주의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¹⁶⁾

상현의 무책임한 연애와 기생적 삶을 비판하는 두메에게 홍이는 마음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길보기에 두메와 홍이의 사상이 달라서 벌이는 연쟁 같지만, 이어지는 서술자의 말처럼 서로 극과 극도 아니면서, “만나면 공연히 해보는 수작”¹⁷⁾인 것이다. 엄혹하고 혼란한 일제 말기의 불안에서 기인된 투정이자 주사라고 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친구이기에 서로 받아주는 것이다.

새 세대 독립운동가들은 길상처럼 체포되지 않는 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간도 일대에서 방랑한다.

15) 박경리, 『토지』 5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185쪽.

16) 박경리, 『토지』 5부 5권, 마로니에북스, 2012, 41쪽.

17) 박경리, 『토지』 5부 5권, 마로니에북스, 2012, 43쪽.

2-2-3. 밀정과의 대결

『토지』의 독립운동 이야기에서 재미를 더하는 사건이 밀정 이야기이다. 그래서 2부부터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밀정 김두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간도의 독립운동가들을 잡는 데 활약하는 인물이다. 『토지』에서 필수적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토지』에서 독립운동가의 존재를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기능도 김두수가 한다.

김두수는 용정의 공노인이 운영하는 객줏집, 하얼빈의 심운회 집 등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점을 끈질기게 염탐하여 김길상, 장인걸, 박재연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한다. 또 그들과의 대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신분이 노출되어 심대한 타격을 입기도 한다. 2부부터 5부까지 밀고 당기는 그들의 대결이 서사에 긴장감을 주며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상황을 실감나게 한다. 김두수는 윤이병, 송애, 임이 등을 꼬드기거나 그들의 약점을 잡아 꼬나풀로 이용한다. 그들은 독립운동가의 애인, 양딸, 누나 등 한때 긴밀한 사이였으므로 독립운동가들이 처한 엄혹한 상황을 부각시킨다.

김두수가 잔인한 본능을 드러내며 간도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밀정이라면 신태성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독립운동가 내부에 깊숙이 침입하는 밀정이다. 김두수와 달리 이성적이고 지적인 모습으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세상을 논하고 미래를 전망하다가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동지로 생각하는 이들을 밀고한다. 신태성의 밀고 장면은 한 번 서술되지만 김두수 못지않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반전에 있다.

『토지』 전체 서사에서 ‘간도 이야기’가 비중 있게 서술된 것은 2부이고, 그 이후는 현저히 줄어든다. 『토지』가 서회를 비롯한 평사리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 2부의 마지막에서 그들이 귀향하고 난 뒤 서사의 초점 역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평사리 사람들에게 간도는 기회의 땅이자, 성장의 공간이다. 3부부터 5부까지 ‘간도 이야기’는 주로 독립운동가와 밀정의 이야기로 조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된다. 조선에서 김환과 관수를 비롯한 동학 잔당들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펼쳐지므로 2부에서보다 ‘간도 이야기’는 부수적 기능을 한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간도는 대결의 장이자 방랑의 공간이다.

3. 조선족 시점으로 해석한 ‘간도 이야기’

조선족의 사전적 의미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 민족”¹⁸⁾이다. 좁은 의미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을 일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의 ‘간도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에 간도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로서 조선족의 선조 이야기이다. 여기에선 그것을 ‘조선족 형성서사’와 ‘선조들의 항일 희생서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조선족 형성서사

우리 겨레가 중국에서 살아온 때는 매우 오래전부터였으나 지금처럼 간도 지역에 이주하여 마을을 일구게 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20세기

18) 조선족(朝鮮族) ① 조선 민족 ②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 민족,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9.

초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해방 후 1945년 8월 20일에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간도임시정부를 수립했으나, 그해 11월 중국공산당이 간도임시정부를 해산시키고 연변행정독찰 전원공사를 설치했다. 그 후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립되어, 1955년 12월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승격된 것이다.¹⁹⁾ 한마디로 오늘날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근간이 되어 형성된 것이다. ‘조선족’이란 명칭도 해방 이후,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 공식화된 것이므로, 『토지』의 간도 이야기는 조선족의 관점에서 그들의 형성 서사로 볼 수 있다. 그것을 거주 공간과 생활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3-1-1. 조선인 거주 공간의 확보

『토지』에서 ‘간도 이야기’는 서희 일행이 용정으로 이주한 1908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의 이야기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형성 전사(前史)에 해당된다. 그 관점에서 서희의 치부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서희는 일본이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넘어갈 땅들을 사들여 조선인 소유의 공간을 확보하고 귀향할 때 그곳의 부동산을 팔지 않고 공노인에게 양도하여 일인이나 중국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조선인 소유의 땅에 조선인들이 모여 살며 거주 공간을 확보하게 된

19) 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2004, 49-96쪽 참고. 중국 연변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도 조선족의 이주 과정을 ‘1단계: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 2단계: 1910년부터 1931년, 3단계: 1931년부터 1945년’으로 나누어 지금의 중국 조선족은 제1단계에 이주한 자유 이민을 주로 하고, 제2단계와 제3단계에 들어와 중국에 영주하고 중국 국적에 가입한 조선족을 주체로 한다고 본다. (연변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중국 조선족 역사·문화 산책』, 한림대학교출판부, 2002, 41-42쪽 참고.) 『토지』에서 평사리 주민의 이주도 1908년, 즉 제1단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다.

것이다. 서희는 비록 조선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족 자치주 형성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거기에서 공노인과 같은 거간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공노인은 평사리 사람이 아니라서 평사리 주민 중심의 서사에선 제외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서희가 용정에 정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략을 다하여 조력한 인물이자, 길상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부터는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인물이다. 공노인은 월선의 외삼촌으로서 생계를 위해 일찍이 간도에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그는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서 용정의 조선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공노인은 땅이나 집을 증개할 때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다. 김두수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 공노인은 그의 신분을 의심하여 증개하지 않는다. 나중에 권서방이 김두수에게 땅을 증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노인은 다음과 같이 성을 낸다.

“듣기 싫다. 그런 생각이니 조선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빌어먹게 된 거 아닌가. 아무리 구전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 아니면 땅이고 집이고 흥정은 붙이지 말라고 내가 늘상 말하지 않았나. 땅이나 집뿐인가? 하다못해 물건 하나라도 조선사람끼리, 물건이면은 파는 거야 되놈이고 왜놈이고 상관은 없겠으나, 그러니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이면 그놈들한테 사서는 안 되고, 집이나 땅은 그놈들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구만.”²⁰⁾

이와 같이 조선인들이 연대하여 확보한 땅과 집이 그들의 거주공간으로 계승되어 조선족 자치주의 근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박경리, 『토지』 2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283쪽.

3-1-2. 선조들의 생활사

중국 당국이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자치주로 인정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인구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비율이 전향 인구의 30%이상이면 자치주 형성 요건이 된다.²¹⁾ 하지만 인구가 많더라도 그들이 조선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자치주 형성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족은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간도에 이주하여 중국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조선족 형성의 주체는 바로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선조이며 그들의 생활사를 『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평사리 중심 서사에서 제외되었던 송병문 일가와 박서방, 권서방, 홍서방 등의 노동자 인물군이 주목된다.

송병문은 용정에서 교육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회사업으로 조선인들에게 명망이 높은 자산가였다. 하지만 그가 쓰러지고 나서 가계를 이어 받은 장남 송영환의 부덕으로 송병문 일가는 패가망신한다. 송영환은 아버지와 달리 돈과 명예만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인심을 잃고 의처증으로 자신과 아내를 학대하다가 파국에 이른다. 둘째 송장환이 송병문의 인품과 뜻을 계승하여 상의학교를 운영하고 형을 돌보지만 그는 일찍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가족이나 가문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는다. 송병문 가문은 비록 패가망신하지만 일찍이 간도에서 조선인 마을을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며 조선인의 말과 문화를 지키는 데 공헌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조선인의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지도적 인물의 역할도 크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민중의 삶으로 구현된다. 노동자, 농민들

21)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4, 58쪽.

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조선적일 때 그 삶 자체가 조선인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박서방, 권서방, 홍서방 등의 노동자 인물군은 간도에서 살아온 민중의 삶을 대변한다. 더욱이 그들은 다수의 조선족에게 그 선조들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선 안 될 인물들이다. 그들은 서희네 집을 건축할 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 일이 끝나자 생계의 압박을 느끼며 여러 일을 시도한다. 구두 만들기, 엿장수 등 아내와 자식들의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한다. 용이는 간도를 떠날 때 박서방과 홍서방에게 월선이 살던 집을 주고 간다. 그럼에도 그들은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고 생계 걱정을 하고 산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이 민족적 양심은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권서방과 송애의 일화를 들 수 있다. 송애는 길상을 사모하다 두수에게 농락당하고 일인 헌병의 상간녀가 되어 용정에 집을 알아보러 온다. 권서방에게 거간을 알아보지만 권서방은 당장의 이익보다 송애의 패륜이 거슬려 훈계만 한다. 송애는 공노인의 양딸이었는데 그 부모도 배신하고 밀정의 쫓나팔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3-2. 선조들의 항일 희생서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도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 조선족의 관점에서 그것은 선조들의 항일 희생서사로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그들이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이주 계기와 삶의 목표가 국권 상실 및 회복과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항일 독립운

동의 성지로 거듭나고 조선족들은 그 자손임을 새기는 것이다. 그 예로 연길시 신흥 소학교 교사 리염의 사연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사가 되었지만 박봉의 월급에 그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자 연변을 떠날 고민을 한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말을 듣고 교육활동에 사명감을 갖게 된다.

외할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면 저 또한 멩텅구리로 살았을지도 모르니
다. 외할아버지를 안 뒤로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터전이 항일 전
쟁터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²²⁾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민족의식과 전통을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라진 민족의식과 풍습이 조선족에게서 이어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제 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에도 안중근 기념관²³⁾과 청산리 항일 대첩 기념비²⁴⁾ 등을 새로 건립하는 등 항일의 역사를 기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모습은 해방 후 한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고 반민족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미완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토지』에서 밀정 김두수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간도에서 조선으로 이주하는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조선은 간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던

22) 박영희, 『두만강 중학교』, 작은숲, 2016, 228쪽.

23) 2014년 1월 19일,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 과정 및 조선족 동포들의 노력이 《여성경제신문》(2015.2.9)의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7595>.

24) 화룡의 청산리 전투가 시작된 지점에 세워졌던 나무비를 2001년 8월 31일에 웅장한 화강암으로 교체하였다. 성병오, 『중국 속의 이방인-연변을 들여다보다』, 도어즈, 2015, 193-197쪽 참고.

밀정이 살기 위해 찾아드는 곳이다.

이처럼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간도 이야기'의 항일서사를 절실하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에 대해 일제의 핍박과 독립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3-2-1. 일제의 핍박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핍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역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간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었으므로 만주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조선인은 조선에서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만주전쟁이 일어나고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일제의 핍박도 노골화된다.

『토지』의 '간도 이야기'에서 주로 서술되는 핍박은 민족교육에 대한 말살 책동 및 양민 학살과 독립군 소탕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설명과 인물의 대화로 전달된다. 여러 사건 중 '간도참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청산리 싸움 후 우리 동포들이 죽기도 많이 죽었지요. 방비 없는 조선인 부락을 습격해서 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왜놈들은 참 사라하고 불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씬이 결판 나겠소?...(중략)... 만주의 마적단이라는 것도 그렇소. 물론 양민의 재물을 약탈하고 왜군과 내통하는 마적단도 있지마는..."²⁵⁾

만세운동 이후, 혜관 스님이 방문하자 공노인은 '간도참변'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 '간도참변'이란 청산리 전투 후 일제가 만주에 일본군

25) 박경리, 『토지』 3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103쪽.

을 출병시켜 독립군과 조선인 부락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그들은 만주 출병의 명분을 얻기 위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그들이 자행한 약탈을 조선인 독립군이 한 것처럼 꾸민다. 그밖에 일제가 간도공립보통학교를 세워 상의학교와 같은 조선인 민족학교의 생도를 빼앗아 오려는 책동도 서술된다.

일제의 핍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은 박정호 일가이다. 이흥의 친구인 박정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 삼촌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이나 밀정에 의해 살해당한다. 박정호도 성장하여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 특히 삼촌 박재연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김두수를 쫓기도 하고 부상을 입히기도 하지만 끝내 김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울분을 느끼게 한다. 김훈장은 용정의 대화재 후 집을 잃고 박정호 집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때 남다른 집안의 분위기를 느낀다.

언제 나왔는지 눈빛처럼 하얗게 센 머리를 쪽진 안늬은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점잖고 깨끗하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맞잡는 자세를 취하며, “어머님, 작은방에 드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냐?”하며 김훈장을 쳐다보는 안늬은이의 눈빛은 곧았다. “처음 뵈겠습니다. 이번에 소생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느덧 김훈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²⁶⁾

남편과 아들을 모두 일제에 의해 잃었으면서 손녀를 독립운동가에게 시집보내고 손자는 독립운동가로 키우는 여인의 강직함과 담대함이 양반이 아니면 머리를 굽히지 않는 김훈장의 자세를 공손히 만드는 것이다.

26) 박경리, 『토지』 2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14쪽.

3-2-2. 선조들의 독립운동

‘간도 이야기’에는 간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독립운동이 서술된다. 다음과 같이 인물의 대화나 서술자의 목소리로 설명된다.

“역시 설명부족이오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깨뜨려야 할 것은 신흥학교 그것을 두고 한 말이오. 쓸 만한 사람 쓸 만한 학생을 쥐도 새도 모르게 흠쳐내야 하는 거지요. 군관학교에서 정규적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을 활용하자 그것이겠고 나이들이 젊어야 한다는 점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도둑질하기엔 좀 시일이 필요할 게요.”²⁷⁾

송장환은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등의 실패를 교훈 삼아 길상에게 새로운 독립운동 방식을 제안한다. 그 후 길상은 송장환에게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히 서술되지 않는다. 다만 용정의 상의 학교에 다니는 강두메를 군관학교에 보내고 이후 두메가 그들이 기획했던 일의 핵심적인 성원으로 활약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²⁸⁾ 따라서 조선족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 서술되지 않은 틈들에 대해 자기 체험과 배경 지식을 넣어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송장환이나 강두메 이야기는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야기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인 항일 무장 투쟁인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

27) 박경리, 『토지』 2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176쪽.

28) 현재 용정 실험소학교 교정에 서전서숙과 관련된 유적이 있고, 명동학교는 2010년에 복원되었다. 성병오, 『중국 속의 이방인-연변을 들여다보다』, 도어즈, 2015, 77-82쪽 참고.

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선 역사 교과서에서 입시를 위한 방편으로 지식적 측면에서 그것도 대략적인 사실을 기억할 뿐이지만 조선족들에게선 바로 그들의 역사로 기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에서 서술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조선족 입장에서 채워 넣으며 감상할 수 있다. 이때 그들은 한국 독자와 달리, 그들의 땅에서 희생했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떠올리고 복원할 수 있다. ‘간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독립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이는 거의 없다. 이동진, 권필응, 김길상, 송장환, 강두메처럼 조직의 중앙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인물도 있지만, 공노인, 주갑, 이흥, 심운희, 윤광오, 수앵처럼 드러나지 않게 조력하는 인물도 있다. 활동의 정도와 양상은 다르나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란 점에선 같다. 그들 모두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희생할 각오로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에겐 이 희생이 다소 멀고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조선족에겐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역사이기에 ‘간도 이야기’는 그들의 선조 이야기로 재구성될 수 있다.

4. 조선족 역사 콘텐츠로서 『토지』의 의의

『토지』의 2부부터 등장하는 간도에서의 이야기는 조선족 감상자들에게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따라서 간도에 『토지』의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조선족의 역사적 관점에서 『토지』가 해석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지』는 간도에서 형성된 독립운동가, 밀정, 자본가, 농민, 노동자, 상인 계층의 이야기 곧 조선족의 선조 이야기가 되어 현재 거주하는 조선족 감상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에서 생각해보면 간도의 『토지』 문학공원이나 문학관에 존재해야 할 것은 최참판 댁이 아니라 용정의 대화재 이후에 새로 지은 길서상회이다. 그리고 용이와 영팔이 함께 농사짓는 곳이며, 용이가 주갑과 겨울 한철을 보내는 산판이다. 또 공노인의 객짓집과 송장환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던 교육사업의 현장인 학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물들과 공간이 20세기 초 조선족의 역사로 해석되고 그와 결부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시 내용도 굳이 소설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소설의 인물 및 공간과 당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콘텐츠가 함께 전시될 수 있다. 한편 간도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인물들의 정서를 분석하여 감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다. 가령 2부에서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공통된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을 표현하는 전시에서 최참판 댁이나 평사리의 주요 공간이 설계될 수 있다.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인구도 줄어들고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다 한국 사람들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민족 정체성이나 자부심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토지』는 조선족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일으키고 한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매체로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선 간도 지역을 예로 들어 살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이나 러시아, 서울 등의 지역에 새로운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감상자의 실존적 상황에 부합하는 작품의 재해석 및 콘텐츠 기획은 같은 작품이라도 감상자에 따라 수많은 콘텐츠로 거듭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독일의 전역에 존재하는 괴테 박물관이나 러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푸쉬킨 박물관처럼 박경리의 『토지』 문학관도 국내 전역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경리, 『토지』(5-20), 마로니에북스, 2012.

2. 논문과 단행본

김희경, 『테마 공간의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박영희,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족교육의 새 이름 두만강 중학교』, 작은숲, 2016.

박지선, 『프랑스 테마파크 콘텐츠 현황과 기획의 스토리텔링 체계』,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59집, 한국프랑스학회, 2007, 245-266쪽.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4.

성병오, 『중국 속의 이방인-연변을 들여다보다』, 도어즈, 2015.

연변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중국 조선족 역사·문화 산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2.

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2015.

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2004.

최혜실,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8.

태지호, 『테마파크의 '가상성'을 통한 관객성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1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9, 207-228쪽.

토지학회 편저, 『토지와 공간』, 마로니에북스, 2015.

한주, 『조선족 재발견』, 유아이북스, 2017.

린다 허천, 『각색 이론의 모든 것』, 손종흠·유춘동·김대범·이진형 역, 앨피, 2017.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active Content Adaptation of *Toji* – Focusing on ‘*Kando* Story’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literary works are made into various content. Regardless of what this content may be, they are looking for effective forms of enabl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with appreciators. However, as interactive content is prone to constrain the action of its appreciators, appreciators may become passive unless it is effectively created. In Korea, most literary interactive content tends to be produced in the form of theme parks or exhibition halls, which put knowledge before feelings and experiences. As a result, their viewers remain as mere spectators. In order to remedy the problem, we need to plan the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viewers. For this reason, this study takes *Pak, Kyong-ni's* novel, *Toji* as an example.

Toji as a telling form, has been adapted for TV dramas and comics in its viewing form, and for literature museums or literature parks as an interactive form. However, *Toji*, a long historical novel set in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can produce various content depending on the generation and region of appreciators. For example, if a *Toji* literature museum or literature park is established in *Kando*, it should be in a different concept from that of the literature museum in *Pyeong-sari* or the literature park in *Wonju*. In other words, i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ocale of the ethnic Koreans residing in *Kando*. The story in *Kando*, which begins with the second part of *Toji*, consists of two epic tales - one in which *Pyeong-sari* people move to *Kando*, settle there and return home, and the other in which independence activists living as nomads figh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f we interpret and reconstruct the novel in terms of the history of ethnic Koreans in *Kando*, *Toji* will be an epic tale not only about the formation of ethnic Koreans in *Kando* but also about the anti-Japanese sacrifice of Korean ancestors.

In this way, the focus and meaning of the narrative vary depending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appreciators. Therefore, when we plan the literary interactive content, the appropriate reinterpretation of literary works will be the key to a successful content creation.

(Keywords: *Toji*, interactive content, adaptation, the existence of an appreciator, *Kando*, migration narrative, nomad narrative, ethnic Koreans' formation narrative, anti-Japanese sacrifice narrative)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18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